

# ‘수비즈’저택을 통해서 본 Rococo 양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Rococo Style in the Soubise Mansion (hôtel de Soubise)

한 경 희\* Han, Kyung Hi

###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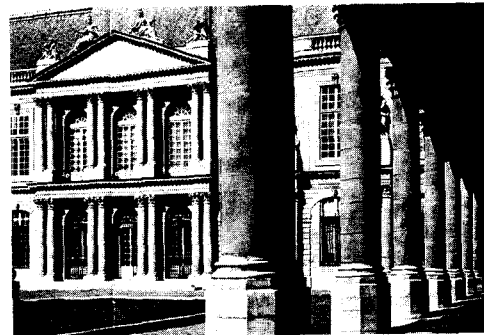
The Soubise Mansion which construction ended in the latter half of 1730s has several rooms which symbolize Rococo which appeared in the 18 century. The work of the Soubis Mansion done by an architect, Boffrand, is a significant work in which he had introduced a new style of building, Rococo, based on a style of Regency, thereby showing a big leaf in that kind of art. In other words, with the elements already established in the days of Regency-white wood panel, gold molding, mirror technique, etc. -and the characteristics of unprecedented, outstanding spatial forms and Rococo decoration introduced, Rococo had enjoyed its peak of full flourish within the moderation of being never excessively magnificent, beautiful, and dignified.

It is a remarkable thing that a model of such perfect ideal beauty was suggested even in the beginning state of Rococo, and it is deemed that such a point resulted in such influence on other places like the Versailles Palace, etc.

### I. 서론

최근 1988년까지 프랑스 문서보관소로 사용되었던 파리 소재 수비즈 저택(Hôtel de Soubise)은 저명한 세 가문에 의하여 그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즉 14 C 당시, 프랑스군 총사령관인 클리송(Olivier de Clisson)에 의해 건축(1371~75)되면서 시작된 이 저택은 클리송 저택으로 불리워오다가, 16 C 기즈(Guise) 공작의 구입에 따라 기즈저택으로, 다시 18 C 초 수비즈의 왕자 -루앙(le prince de Soubise, François de Rohan)의 구입과 동시 수비즈 저택으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날까지 그 명칭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광대한 건축물과 내부 장식의 모습은 18 C 이후 즉 수비즈 저택 이후의 것이나 과거 두 저택의 모습은 외관에서 일부 보이고 있다.

18 C 초, 수비즈 저택의 재건축을 담당했던 건축가는 들라메르(Pierre Alexis Delamair, 1676 ~ 1745)와 보프랑(Germain Boffrand, 1667 ~ 1754) 두 사람이다. 1704년 들라메르는 루앙의 부름을 받고 1709년까지 이 저택의 개조 및 증축을 맡아 과거 건축물의 축을 바꿈과 동시 넓은 파사드, 평면 개조, 입구의 장엄한 내정(〈사진 1〉 참조) 등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건축가에 대한 소유주의 불



〈사진 1〉 수비즈 저택

신임이 그를 도중 하차 시켰고 대신 보프랑으로 교체되어 공사의 마무리를 짓게 되었는데 이 연구의 대상인 저택 내부의 실내 장식은 이때의 것이 아니라 그후의 것이다. 즉 수비즈 저택의 첫세대가 지난 후 그의 장손인 루앙-루앙공작(duc de Rohan-Rohan, Hercule-Meriadec, 1669 ~ 1749)이 이 저택을 상속받은 후, 1732년 당시 60대이던 그가 재혼하면서 보프랑에게 새로운 실내 장식을 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저택은 로코코 양식이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할 무렵인 1730년대 후반에 완공된 작품으로 보프랑이란 건축가가 그의 생애 말기에 남긴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실내 장식의 예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화려한 실내의 모습도 불과 50여년간 유지되었을 뿐 1787년 수비즈家の 소유가 끝나면서 그 본연의 자태를 잃기 시작했다. 즉, 1789년의 대혁명기간, 가구 도난을 비롯 파손되기 시작하여 1808년 국가에 의한 구입으로 말미암은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많은 희생을 가져오게 했다. 따라서 이 저택에서 볼 수 있는 18 C 로코코 양식의 대표되는 예는 꾸준한 복원 작업을 통하여 옛 모습을 지니게 된 1층의 공작거처(Appartement du prince)<sup>1)</sup> 중 침실과 응접실, 2층의 공작부인 거처(Appartement de la princess)의 침실과 응접실 네 곳으로 제한 축소된다. 그리고 이 네 곳의 실내 장식 스타일은 과거 17 C까지의 무겁고 장엄한 스타일에서 벗어나 개인 공간이 중히 여기기 시작된 시기에 공사되었고 더욱이 과거 베르사이유 궁전의 영향하에서가 아닌 파리의 순수한 사저택에 나타난 로코코 양식을 대표하고 있는 바, 이의 고찰을 통하여 이 실내가 가지는 특성이 무엇이며 나아가 당시 파리의 사저택 실내 장식의 실체를 파악하는 근거를 만들에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이사, 이화여대 장식미술학과 강사, 미술학 석사

## II. 시대적 배경

보프랑이 수비즈 저택의 실내 장식 공사를 착수할 즈음 파리에서나 궁중에서는 장식 미술의 위치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사실 보프랑은 레전스 양식(Régence style)과 로코코 양식에 걸쳐 활동한 건축가이다. 동시에 그의 건축 수업은 이미 루이 14세 시대의 수석건축가인 망사르(Jules Hardouin Mansart) 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뿌리는 전시대로까지 올라간다.

레전스 양식(1708~1730)은 루이 14세 서거 후 5세에 등극한 루이 15세를 대신하여 오를레앙공작(Philippe d'Orléans)이 섭정하던 시기(1715~1723)를 전후하여 발생된 과도기적인 양상으로 루이 14세의 고전적이고 엄격함이 지속되는 한편 우아한 곡선의 미를 응용한 새로운 것의 추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섭정기간동안 그 화려했던 예술의 본거지인 베르사이유(Versaille)는 궁정이 분산되면서 죽은 도시가 되었고, 건축가, 예술가들의 이동과 함께 예술의 중심지는 파리로 옮기게 되었다. 특히 섭정의 중심지였던 궁전(Palais-Royal)을 비롯, 많은 새로운 계급에 의한 개인 저택들의 활발한 건축이 내부 장식의 주목할 만한 예들을 속출해냈다. 당시 그 주역을 담당했던 건축가들은 섭정시기의 수석건축가 코트(Robert de Cotte)를 위시하여 보프랑, 가브리엘(Jacques Ange Gabriel), 들라메르 등이다. 이들 건축가들은 장식가로서의 역할도 겸하면서 문양가, 조각가, 화가 및 소묘장과 함께 백색의 브와즈리(boiserie)·금빛 몰딩·거울의 결합으로 안락과 미의 새 기원을 만들기 시작하여 루이 15세 통치 기간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실내 장식의 모델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새 변화의 조짐과 함께 루이 15세는 결혼을 계기로 나시 베르사이유로 돌아오게 되었고<sup>5)</sup> 공식적인 생활 뒤에 기본적인 안락함을 위한 사적 생활을 원하였다. 그의 내성적이고 비밀스런 은거 취향의 성격은 장중함보다는 가벼움, 위엄, 품위, 존엄보다는 사생활, 친밀, 친밀함 등을 취하면서 스스로 로코코 양식으로의 변화를 만들어 나갔다.

이렇듯 왕을 비롯하여 당시 사회가 개인 생활, 안락함, 그에 따른 요구와 기능을 중시하게 되고 평면의 구성과 배치가 용도에 따라 계획되면서 실내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화려한 실내 장식은 간소한 표현의 외부와 대조를 이루게 되었고 이 내부 장식의 공헌 역할은 말할 것도 없이 로코코란 이름이 유래된 로카이유(rocaille)라는 암석, 패곡을 의미하는 조각 장식이었다. 여기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건축가 겸 문양가인 삐노(Nicolas Pineau), 메이쏘니에(Juste-Aurèle Meissonnier) 등은 새로운 스타일의 장식 문양을 제시했으며, 이들의 영향하에 로카이유는 1730년경부터 새로운 기호 즉 '그림같은 회화적 양식(genre pittoresque)'으로 발전되어, 대비에 따른 비대칭 등을 나타내는 동시에 예술적 창조의 환상적이고도 경쾌한 그리고 매혹적인 프랑스풍으로 전개되어 전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 III. Rococo 양식의 실내 배치와 그 장식의 특성

평면 배치에 있어 아파트먼트(Appartement)<sup>6)</sup>란 용어는 좀 더 편리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의 개념으로 쓰이면서 저택 내부에 여러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었다. 즉 공식적인 장소로 쓰여지는 앞쪽의 아파트(Appartement de parade)와 뒤쪽의 거울을 위하거나 혹은 더욱 안락하게 편히 지낼 수 있는 아파트(Appartement de commodité)가 그중 하나의 예이다. 전자는 대기실, 식당, 응접실, 서재, 침실 등을 포함하게 되며 후자는 벽감형태의 방, 중2층 구조의 서재, 욕실 등 전자에 비해 노출되지 않고 방의 규모가 작아지며 중2층 구조가 들어오게 되었다.

또 다른 예는 주인의 아파트를 1층에, 여주인의 것을 2층에 두어 구별하기도 하는데 수비즈 저택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듯 저택들은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 계절, 성에 따라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크게 분류하고 다시 이를 여러 방으로 세분화시켰으며 방의 규모 또한 작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아파트 속에 묶여있는 여러 방들은 복도로 연결된 것이 아닌 일렬의 연속된 방들이어서 그 출입으로 인한 각 공간의 기능 침해는 불가피했다. 따라서 각방의 출입문의 위치를 창문쪽으로 배치시켜 통로 동선을 창문앞으로 제한시키는 정도였다. 이런 평면의 원칙아래 몇몇 건축가들은 주택 내에 종적 동선과 횡적 동선을 증가시켜 그 결점을 보완하기도 했으며 위생설비의 해결<sup>7)</sup>, 생활예술의 발전, 그리고 복도라는 통로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울러 식당, 욕실, 부인용 내방(boudoir), 도서실 등의 출현이 18C의 생활예술을 특징짓는 평면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고, 루이 15세(Louis XV) 왕의 개인적인 취향도 이에 편승하여 식당 옆에 부엌을 배치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sup>6)</sup>

여러 평면 요소중 응접실과 침실은 저택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17C, 이탈리아에서 도입된 응접실(salon)은 당시 높은 천장과 함께 큰 규모였으나 이제는 작아지면서 계절에 따른 분리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집 내부에서는 가장 큰 방으로서 무도회나 음악회 등을 위한 모임의 장소, 또 평면의 배열상 본래 역할을 하는 기능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조각된 패널벽, 거울, 금빛조각, 회화 등이 그 장식의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침실(chambre de parade)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택의 주인방을 칭할 때 쓰며 순수한 침실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공식적인 방문이 이루어지기도 해 방 안쪽으로 알코브(alcôve)를 들여와 침대를 분리시키고 있다. 18C 초 이와같은 예는 1701년 베르사이유궁의 루이 14세 침실, 섭정 시기의 궁전(Palais-Royal)의 오를레앙 공작 침실, 수비즈 저택 등이다. 18C 중엽부터 방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알코브도 사라지고 더 이상 방문의 용도로 외부인을 맞이하지는 않았다.

방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장식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음은 당연하다. 장식할 넓은 면이 사라지면서 벽에 어울리는 소주제를 택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실내에서의 새로운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로코코 실내 장식의 스타일을 결정짓게 된다.

첫째, 람브리(lambris)의 놀라운 효과를 들 수 있다. 과거 중세 때는 이 단어가 패널 벽을 의미할 뿐 아니라 천장, 바닥까지 다 포함된 말이었고 아직도 그의 개념은 남아 있으나 이제는 벽의 패널 작업을 뜻하게 되었다. 벽 패널링의 재료로는 대리석과 목재가 있으나 목재패널 벽<sup>7)</sup>이 보편화되면서 백색을 비롯, 옅은 청색, 담황색 등 밝은 색으로 처리하여 실내에 빛을 증가시켰고 동시에 쇠시리와 여러 장식 문양의 조각을 금빛 등으로 처리하여 람브리로 하여금 사치와 안락함을 주는 필수 요소의 위치로 굳히게끔 한 것이다.

1) 사실 불어를 직역하자면 '왕자의 아파트먼트'가 되지만 당시 이 거처의 주인이 Rohan-Rohan 공작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편의상 공작 거처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2) 1723년

3) 17C 부터 사용되었던 이 용어는 큰 규모의 저택에서 '한 묶음으로 된 일렬의 여러 방들'의 개념을 갖는다.

4) 보프랑(Boffrand), 오펜오르(Oppenord), 가브리엘(Gabriel) 등이다.

5) 드디어 상류층 주택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1731년 베르사이유궁에도 수도관 도입이 이루어진다.

6) Feray, J., 'Architecture interieure et Décoration et France des origines à 1875', Paris, pp. 191 ~ 197.

7) 일명 브와즈리(boiserie)라 함

목재패널 벽은 대개 상·하부로 나뉘어지며 그 경계선은 허리선쯤으로 오게 되어 벽난로 및 침대 높이, 콘솔들이 이 선에 맞추어지는 예도 있다.<sup>8)</sup> 높은 천장으로 인하여 상부벽은 하부에 비해 매우 높아지며 그 분할 방법은 기하학적인 명확한 구분으로 수직선을 강조하면서 상·하부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패널의 형태는 균형상 수직을 취하면서 그 내부의 상·하부 몰딩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 많은 변화를 피하고 있다.

둘째, 거울<sup>9)</sup>의 사용으로 실내는 팔목할 만한 새 면모를 갖게 되었다. 주로 벽난로 상부와 그 맞은편 벽, 창문 사이의 벽을 이용한 거울은 실내에서의 반복성과 움직이는 그림 역할로 활기를 주었고 공간과 빛을 배가시켜주는 효과도 있어 큰 유행을 가져왔다.

셋째, 거울의 찬란함과 조각된 패널벽은 붓의 예술을 정지시키듯 회화장식의 위치를 출입문 상부 혹은 벽 상부 등으로 제한시켰고 그 주제는 꽃, 풍경, 신화, 우의화, 목동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림을 벽에 거는 의미로서의 장식이 아니라 패널벽의 일부분으로 된 벽화의 개념이다.

넷째, 과거 창문 사이나 출입문 맞은편에 있던 벽난로는 방한쪽면의 중앙으로 그 위치를 바꾸고 있다. 힘있는 기둥의 벽난로 틀, 그 위의 난로 선반, 다시 그 상부의 금빛 조각들 속의 거울이 하나의 세마(schéma)가 되어 큰 유행을 가져왔으며, 특히 상부 거울과 금빛 조각 및 벽난로 몸체의 금빛 청동조각은 중요한 벽 장식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며 파리 예술의 가장 큰 성공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벽과 천장의 백색 내지 밝은 색의 처리는 우아함과 빛을 주면서 여러 가벼운 느낌의 조각 즉 로코카이유, 꽃, 종려나무, 아라베스크 등의 조각 장식을 자유스런 금빛 유희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거울, 회화장식, 벽난로 등이 제위치와 모습으로 당당이 실내에 들어와 로코코 실내장식의 특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IV. Soubise 저택

1층은 남자, 2층은 여자의 거처로 상하 구분되어 있으며 같은 위치에서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 거처는 서로 공식적인 통로인 계단<sup>10)</sup>으로 연결되었으며 침실 뒤쪽에 계단으로도 통행이 가능했었다.

18C 초 들라메르에 의한 건축 공사는 그 후 보프랑에게 평면 배치의 어려움을 주었다. 이러한 연유로 침실을 지나 응접실이 오게 되는 동시에 응접실의 위치가 진정한 의미의 기능을 잃은 채 여러 방을 지난 후, 건물의 모퉁이 부분에서 티원형의 별채형식을 취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많은 빛과 풍요로운 장식을 지니게 되었다. (사진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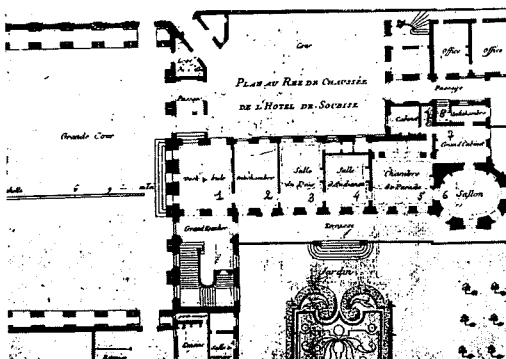


사진 2 수비즈 저택의 부분 평면도(1층)  
(중앙부 우측에 살롱 그 좌측에 침실이 보인다.)

#### A. 공작의 거처 (Appartement du prince)

1. 침실(Chambre de parade du prince) (사진 3,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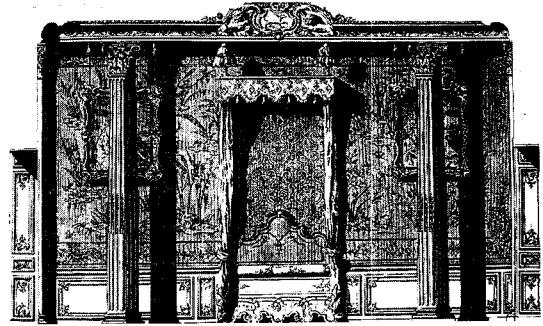


사진 3 공작 거처 침실 입면도  
출처 : Boffrand, G., 'Livre d'Architecture', 1745.



사진 4 공작 거처 침실

응접실 바로 전에 위치한 점, 또 당시 의례적인 방문도 이루어졌던 침실의 역할이 건축가로 하여금 알코브(alcôve)를 들여오게 한 후, 공식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로 구별하고 있다. 알코브는 2개의 원주와 양쪽 벽면의 4각 벽주로 구획되며 천장은 이 기둥들에 의해 나뉘어지고 있다. 벽의 마감은 하부의 백색 패널벽 위에서 붉은 색 천으로 강조시키고 있으며, 이 곳 구석의 비밀문은 계단을 통하여 위층과 연결된다. 침대는 양 기둥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비어있다.

알코브를 제외한 벽은 백색의 목재 조각 패널벽으로 2층에 비해 각기 넓어진 비례로 수직 상승감이 떨어지고 있으나 4개의 기둥이 주는 수직 몰딩이 이를 대신해 준다.

내부장식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조각 장식과 회화 장식이다. 조각장식은 주제를 가진 부분과 벽·천장·출입문 등에서 단순히 유행하는 문양으로 배경 역할을 해주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전자의 예는 벽난로 좌우, 패널벽 중앙에 있는 둥근 형태의 메다이옹(médailion)으로 그 수자는 4개이며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 조각의 제작자는 아담(L. S. Adam, 1700 ~ 1759)과 르무완(J. B. II. Lemoyne, 1704 ~ 1787)이며 각기 '분별', '비옥', '진실', '영광'이란 제목을 갖고 있다. 후자의 경우, 비록 금빛은 아니지만 백색 배경 위에서 당당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는데 특히 패널벽의 경우 위층보다는 많은 자유스러움이 엿보이며 가벼워지고 있다. 또 백색 회천장의 코니스네 모퉁이와 각 중앙부에는 각기 왕권을 나타내는 문양 및 가문 등이 보이고 있어 가히 남성적인 소재라 할 수 있다.

회화 장식인 4개의 그림 역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벽면에서 거울을 축으로 출입 문상부와 패널벽 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그림은 1737 ~ 39년사이 루브르 미술 전람회(Salon du Louvre)에 출품<sup>11)</sup>되었던 작품으로 트레몰리에르(Tremolière)의 '사랑으로 굴복시킨 헤베와 헤라클레스의 결혼', 레스투(Restout)의 '여명과 내팔', 반 루(Van Loo)의 '3월과 비너스' 등이다. 이들 그림은 신화를 주제로 하여 백색 패널벽 위에 금빛 틀 안에서 벽의 일부분으로서, 또 강한 장식요소로서 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그림들은 벽면 상부에서 거울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그 하부는 문과 패널벽으로 형성되어 비대칭이 된다. 이에 보프랑은 좌우 대칭의 개념을

하나의 벽(입면)에서가 아닌 방 전체에서 서로 마주볼 때 나타나는 좌우대칭, 균형의 효과를 이용했던 것으로 전체공간을 파악한 건축가의 역량이 엿보인다고 하겠다. (<사진 4> 참조)

이같이 '방속의 방'이란 개념 속에 알코브를 형성하여 침실을 분리했음은 위층의 침실과 같으나 남자의 거처인 만큼 검소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벽면의 금빛 부조 장식이 거울과 회화 장식의 테두리로 제한되어 있으며 벽의 엄격하고 남성적인 구성법, 기둥이 주는 웅대한 면모가 남성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대혁명이후, 또 국가에서 이 저택을 구입한 후 특히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2층보다 1층의 모습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1909년과 25년 사이, 다시 1967년과 1970년에 걸친 두 차례의 복원 작업<sup>8)</sup>을 통하여 지금은 거의 원상태에 이르고 있다. 다행히 보프랑은 수비즈 저택의 도면을 그의 저서<sup>9)</sup> 속에 남기고 있어 복원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벽난로, 그 상부의 거울과 테두리·창문·기둥·천등은 복제품이고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가구 배치는 되어있지 않다.

## 2 응접실(salon ovale) (<사진 5,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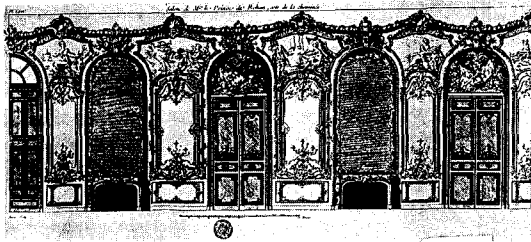


사진 5 공작 거처 응접실 입면도  
출처 : Boffrand, G., 'Livre d'Architecture', 1745.



사진 6 공작 거처 응접실

2층의 살롱 밑에 위치한 이곳 역시 같은 의도의 설계하에 남성적인 면모의 엄격함을 표현하고 있다. 즉, 타원형 평면 속에서 창·문 등이 형성하는 높은 아치, 그 사이의 패널벽이 주는 낮은 아치, 이들을 연결하는 에코앵송(écoinçon)들이 통일감과 리듬감을 주는 동시에 사각들이란 종래의 방 개념을 탈피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거울들에서만 나타나는 금빛의 제한된 사용, 흰색 몰딩의 패널벽, 더욱이 2층의 회화 장식대신으로 등장한 에코앵송의 백색 부조 장식이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의 모습보다는 검소하고 남성적인 분위기를 표출한다고 보겠다.

이 살롱에는 회화 장식이 없다. 단지 여러 종류의 조각 장식들이 방의 주요 자리에서 큰 스케일로 초점 역할을, 혹은 작고 섬세한 모습으

로 배경이 되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자의 예는 벽과 천장 사이의 아케이드 상부에서 물결치듯 움직이는 에코앵송 내의 백색 석고 부조 장식이다. 이들 8개의 석고 부조 장식은 과학과 예술을 찬양하는 우의적인 인물군으로서 그중 4개는 아담(Lambert Sigisbert Adam, 1700 ~ 1759)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각 주제는 '시와 회화(la peinture avec la poésie)', '음악(la musique)', '정의(la justice)', '역사(l'Histoire)'의 제목을 갖고 있다. 나머지 4개는 르므완(Jean-Baptiste II. Lemoyne, 1704 ~ 1778)에 의해 제작된 '정치와 용의주도함(la politique et la prudence)', '기하학(la géométrie)', '천문학(l'Astronomie)', '시(La poésie)' 등으로, 백색이 주는 차가움은 2층 살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랑 주제를 담고 있는 회화의 따스한 느낌과는 매우 다른 양상인 것이다. 이 두 조각가는 역시 옆방 침실 메다이옹의 제작자이기도 하다.

출입문 상부의 트로피 조각 역시 힘차고 남성적이다. 이렇듯 벽 상부 조각에서 보여지는 대담한 기지의 표현법은 천장 중앙과 패널벽에서 섬세하리만큼 우아하고 여성적인 조각 장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색의 사용과 함께 대비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른 세 방과 달리 이살롱의 벽은 옥회색(gris du lin)을 취하면서 백색 쇠시리 및 장식 조각과 에코앵송 내 백색 부조 장식의 배경을 이루고 있고, 천장의 백색 석회 천장은 중앙부 조각에서 옥회색을 부분적으로 반복시키고 있어 색의 면적에서 오는 대비 효과 내지 통일성을 함께 가져온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 유례없는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출입문·패널벽 위 조각은 더욱 단순해지고 가벼워지면서 비대칭의 모티프로 향하는 아주 분명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아래층 공사가 시기적으로 약간 뒤에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짐작케 된다.<sup>10)</sup>

벽난로 상부의 큰 거울은 창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 실내에 큰 의미를 - 밝음, 가벼움, 외부 정원의 도입, 살아있는 그림 등 - 주며 18C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 요소로 남게 되었다. 또 벽난로와 그 상부 거울 벽이 주는 숙련된 솜씨의 비례감은 오히려 2층의 살롱보다 현대 미학적 측면에서 더 평가받는다. 특이한 공간 형태, 창문이 주는 흥예 창틀, 석고 부조 장식의 인물군, 섬세한 조각으로 이루어진 목재 패널벽 등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효과와 함께 가히 남성의 방임을 잠잠케 한다.

옆방의 침실과 마찬가지로 1970년에 끝난 복원 작업으로 없어졌던 두난로, 그 상부 거울과 틀, 창문, 마루 등이 보수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8) 수비즈 저택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9) 이미 루이 14세 통치하에 설립된 유리공장 - la manufacture de saint-Gobin 으로 유리 사용의 보편화가 이루어졌고, 호화스런 실내로의 변모를 가져온 중요 요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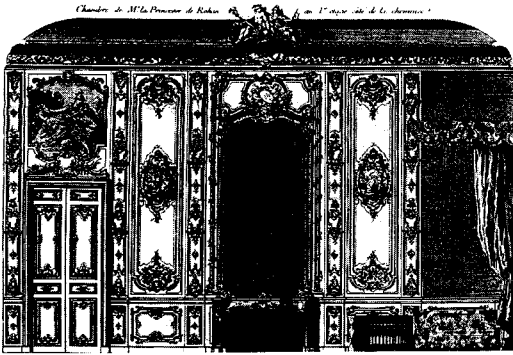
10) 1884년 지금의 계단으로 대체되었음.

11) Langlois, CH-V. 1992, 'Les Hôtels de Clisson, de Guise et de Rohan-Soubise du Marais', Paris, P.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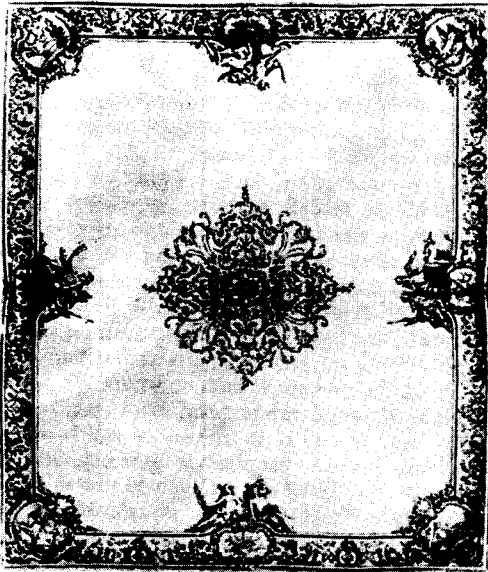
12) Babelon, J. P. 1982, 'Le Grand Appartement du prince du Soubise au Rez-de-chaussée de l'Hotel de Soubise', Cahiers de la rotonde, No. 5, p. 53

13) 1745년 수비즈 저택의 공사 후, 보프랑은 그 도면을 중심으로 'Livre d'Architecture'를 출간했다.

14) 이는 회화장식의 제작년도로도 추정가능함 (princess:1737 ~ 39. prince: (1738 ~ 39)).



〈사진 7〉 공작부인 거처 침실 입면도  
출처 : 보프랑, G., 'Livre d'Architecture', 1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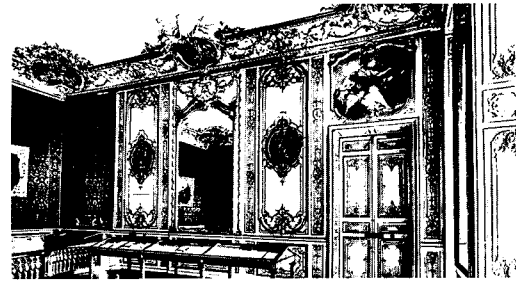


〈사진 8〉 공작부인 거처 침실 천장도

## B. 공작부인의 거처 (Appartement de la princess)

### 1. 침실 (Chambre de parade la princess)

이 방 역시 1층과 거의 같은 평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공식적인 접견장소로 혹은 창문쪽의 통로로 인하여 침해된 독립성이 알코브(alcôve)를 들여오게 함으로써 방이 분리되는데 다만 보프랑은 이 분리를 위하여 전 세대의 아이디어 곧 금빛 난간 장식(balustrade)를 이용하고 있다. 11(〈사진 9〉 참조)



〈사진 9〉 공작부인 거처 침실.

알코브의 위치 또한 창문 맞은편의 방 안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벽 마감처리는 하부 목재패널 위의 붉은색 천으로 마감된다. 따라서 벽의 마감은 천과 나무패널 벽으로 구별되며 백색 회천장, 목재 마루바닥 등과 함께 1층의 침실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백색 패널벽 위의 금빛 조각 장식만이 실내의 분위기를 매우 화려하게 바꾸고 있는 것이다. 천은 붉은색 천으로(damage rouge), 큰 아라베스크 문양을 담고 있으며 현재는 옛 도면에 의거해 제작된 것으로 대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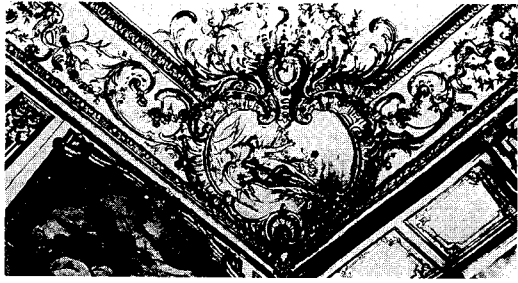
내부 장식의 종류로는 역시 조각 장식과 회화 장식으로 구별된다. 전자의 경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첫번째 예는 벽난로 좌우 큰 패널벽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금빛 타원형의 메다이용으로, 이들은 2개씩 서로 마주보고 있어 모두 4개이다. 이 금빛 메다이용은 처음 실내에 들어온 요소로서 1660 후에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각기 신화에서 온 사랑 모험 이야기를 낚은 부조로 표현하고 있는데 각 메다이용의 주제는 쥬피터(Jupiter), 비너스와 아도니스, 쥬피터와 세멜레(Sémélé), 에우로페(Europe), 이오(Io)의 사랑 이야기이다. 10(〈사진 10〉 참조)



〈사진 10〉 공작부인 침실, 메다이용

두번째 예는 코니스의 네 모서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역시 쥬피터의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 11(〈사진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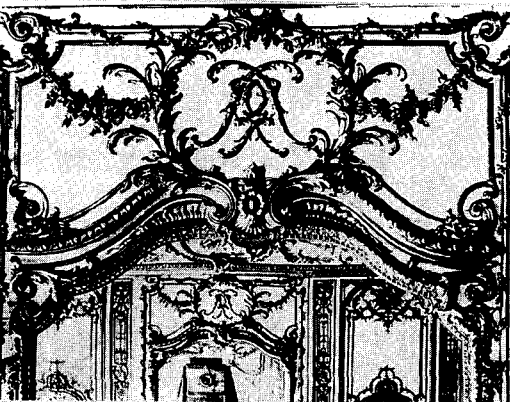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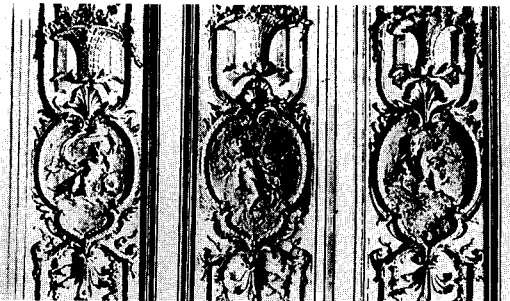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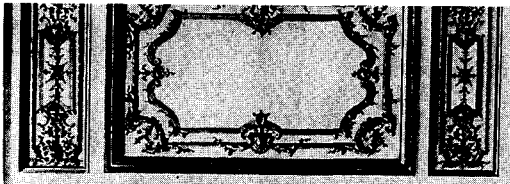
마지막 예는 코니스의 네 중앙부에서 보여지는 신화인데 이는 백색 회반죽 조각으로 아담에 의한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신화의 주인공 공은 박카스(창문 사이), 다이아나(알코브), 머큐리(살롱 벽), 비너스 등이다. 이렇듯 신의 사랑을 상징하는 인물 조각의 주제 선정은 당시 젊은 아내를 맞이들이면서 공사한 까닭에 그녀를 위한 배려와 무관하



〈사진 11〉 공작부인 침실, 코니스 조각

지 않다.

이들 이외에 단순한 여러 유행의 금빛 조각은 주로 패널벽 상·하부, 문판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각 패널벽의 사각틀 내에서 보이는 우아한 모습의 금빛 조각은 마치 금빛 레이스를 좌우 대칭의 규격에 박아 놓은 듯, 아래층 몰딩 수법에 비해 고전적이며 옆의 살롱과는 같은 수법이 다. (〈사진 12〉 참조)



〈사진 12〉 공작부인 침실 브와서리의 조각 디테일

특히 이 패널벽은 중앙의 메다이용과 함께 수비즈 공사 바로 직후 베르사이유 궁의 루이 15세 거처( *Appartement du Louis XV* )<sup>15)</sup>에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프랑에 의한 파리식 벽 처리법이 베르사이유궁에 영향을 주었음을 볼 수 있다.

사실 수비즈 저택의 벽패널 조각가들은 익명이다. 반면 이 방과 그 유사성을 갖고 있는 베르사이유궁의 루이 15세 거처는 제작자가 조각가인 베르베르크트( *Jacques Verberckt*, 1704~1771)로 알려지고 있어 그를 수비즈 저택의 2층 침실벽 조각가로 추정하는 예도<sup>16)</sup> 있으나 수비즈 저택 공사 당시 그는 베르사이유에 고용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에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렇듯 우아함, 섬세함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로코코 양식의 조각 속에 이 침실은 아직도 코니스 부분에서 레전스 양식을 간직하고 있다. 벽과 천장 사이에서 조각된 이 코니스는 네 모서리와 중앙 위에 앞서 언급한 메다이용을 담고 있어 다소 무거운 느낌이다.

회화 장식은 창문 옆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두 출입문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시 사랑 주제의 ‘우의화’로서, 창문을 바라보며 오른쪽 쪽의 것은 부셰( *Boucher* )의 ‘사랑의 교육을 주관하는 은혜’, 왼쪽은 트레몰리에르의 ‘젊은 소녀에게 직조예술을 가르치는 미네르바’이다. 섬세하면서 또 간결한 틀, 그 안에 있는 18C의 전원풍 회화가 곧 로코코 실내 장식의 묘미인 것이다.

독립된 침실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알코브를 형성하고 있음은 아직도 발전 단계의 실내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다소 과용된 듯한 금빛 조각 장식에서 레전스 양식의 무거움과 로코코 양식의 새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은 수비즈 저택 공사의 시기가 로코코 양식의 정립이 시작되던 시기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넓고 좁은 패널벽의 리듬감, 수직선의 강조, 그 안에 새로 등장한 금빛 메다이용, 또 우의화인 회화 장식을 벽난로 위의 거울과 함께 보다 섬세하고 가벼워진 로코코 양식의 모습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패널벽의 구성법 내지 조각 장식은 베르사이유궁으로 하여금 파리식으로 접근케 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과시하여 일반 저택사에 남을 만큼 중요한 자료이다.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상부 거울을 갖고 있던 벽난로는 없어졌고, 그중 하나만 복제품으로 대체되었으며 유리창, 알코브 내의 침대 천, 난간 등이 보프랑의 도면대로 복원되었으며 바닥은 과거 주석과 구리가 상감되었던 것이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 아래층에 비해 2층은 매우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었다.

## 2 응접실( *Salon ovale* )

유례없던 특이한 공간 형태, 조각과 회화의 질적인 면, 빛나는 여러 다양한 요소로써 불란서 로코코 양식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 살롱은 수비즈 저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이다.

완만한 형태의 궁륭 천장을 제외하고 그 공간 형태는 1층과 다를 바 없다. 즉 타원형 평면 위에 펼쳐지는 입면은 창·문·벽난로 면이 형성하는 큰 아치, 그 사이 패널벽이 주는 작은 아치가 서로 반복되면서 리듬감, 통일감 내지 체계감을 주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들 크고 작은 아케이드는 그 상부에서 그림을 담고 있는 에피앵송으로 연결되며, 그 위의 코니스는 자연스럽게 궁륭 천장을 향하여 물결치듯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니스는 다시 궁륭 천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방사선 형태의 금빛 조각 장식과 이어지고 있어 모든 요소는 결국 천장으로 이어지면서 실내 어느 부분에도 직선면을 형성하지 않고 공간 자체의 일체감 내지 상승감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공간 연출법을 도입한 것이다. 특히 천

15) 이외 예는 베르사이유 궁전의 루이 14세 침실에서 볼 수 있다.

16) Ballot, M. J., 1930, 'Le Décor intérieur parisienne', Paris, p. 60.

17) 1738년, 시계가 있는 서재( *Cabinet de la pendule* )의 벽면 등.

18) Germain Boffrand, 'L' Aventure d'un Architecte Independent', Paris, 1986, p. 223.



장 중앙부에서 퍼져나오는 금빛 조각 장식은 푸른 빛 천장에서 마치 하늘을 덮고 있는 금빛 레이스 효과를 갖고 있어, 이런 모습은 당시 파리에서도 드문 예이다. (<사진 13, 14, 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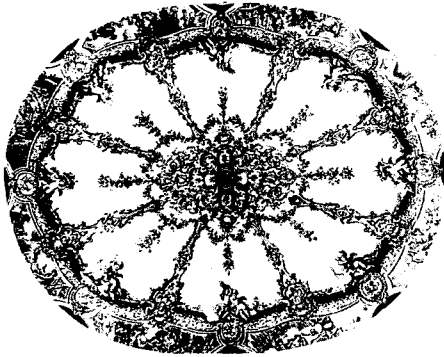


사진 13 공작부인 응접실 천장도  
출처 : Boffrand, G., 'Livre d'Architecture', 1745.



사진 14 공작부인 거처 응접실



사진 15 공작부인 거처 응접실 입면도

내부에 나타나는 색은 백색 패널벽 위의 금빛, 회화 장식에서의 검붉은 색조, 천장의 푸른색이 주를 이룬다.

내부 벽면 장식 역시 조각 장식과 회화 장식으로 구별되며 조각 장식인 경우 과거 루이 14세 때의 'Le Brun' 수법의 장식이 나타난 두 곳<sup>29)</sup>을 제외하고는 로코코의 모습이다.

천장의 장미꽃, 코니스의 아라베스크 등과 함께 패널벽에서는 완전한 로코코 양식의 문양이 얇은 쇠시리 장식으로 섬세히 또 가볍게 표현되고 있다. 문양의 종류로는 아라베스크, 늘어진 꽃줄 장식, 조개 등이 다. 그러나 아직 시기적으로 로코코 양식의 초기 단계이므로 패널벽 중앙의 부채꼴로 퍼지는 종려나무, 아라베스크 문양은 중앙에서 축을 이루고 있는 조개 장식과 함께 좌우대칭의 균형감을 철저히 지키고 있음은 아래층의 좀 더 가벼워진 모습에 비해 경직되어 있다.

이 패널벽의 문양 내지 그 수법은 옆방 침실과 마찬가지로 베르베르크트의 손길이 연상되나 그는 거의 같은 시기에 베르사이유 궁의 '소

갤러리'에서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겠다. 사실 베르사이유 궁의 '루이 15세 거처'와의 유사성은 오히려 옆방 침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방을 더 독립적인 위치로 굳히고 있는 것이다.

이 살롱에서의 큰 매력은 거의 원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회화 장식이다. 화가 나투와르( Charles Joseph Natoire, 1700 ~ 1777 )는 '푸쉬케( psyché )신'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당시 유행하던 기호와 회화 스타일로 젊은 부인의 살롱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해 내었던 것이다. 붉은 색조의 이 회화는 1737년과 39년 사이에 제작되었으며 모두 8개로서 마치 카메오 세공을 연상시키면서 푸른 하늘을 상징하듯 펼쳐 있는 천장을 둘러싸고 있다. (<사진 14, 16 > 참조) 이렇듯 로코코 양식의 화려



사진 16 공작부인 거처 응접실, 회화 장식 디테일

하고 풍부한 상상력으로서의 벽화는 낭만적인 신들의 사랑 주제가 도입되면서 더욱 가중된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과거 루이 14세 시기에는 신화의 주제가 왕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기준에서 이루어졌었기 때문이다.

창문 맞은편 벽난로 상부에 위치한 거울의 효과는 이미 1층의 살롱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옆방 침실과 마찬가지로 주석과 구리가 상감되었던 목재 바닥은 현재의 것으로 대체되었고, 복제품인 벽난로 그 상부 거울과 테두리 및 침실과 통하는 문 상부에 위치한 인물상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지금껏 18C의 로코코 양식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학자들이 장식 미술 분야에서 그 정점을 이루게 한 18C의 가장 완벽한 모델로 제시하기도 한다.<sup>29)</sup>

## V. 결론

보프랑의 건축 활동 배경은 이 저택의 실내 장식이 갖는 우수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레전스 시대에 파리를 중심으로 한 그의 왕성했던

건축활동과 건축이론, 이후 로코코 양식이 시작되면서 그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했던 뽀노(Pineau)와의 많은 공동 작업이 보프랑에게 수비즈 저택이라는 결과물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즉 수비즈 저택은 보프랑이 레전스 시대에 잉태한 후 로코코 양식으로 태어나게 한 초기 작품이다.

더욱이 건축가로서의 보프랑의 이론은 표면 장식의 우월감으로 한정 짓던 실내 장식의 위치를 놀라운 비약과 자유로운 형태로 올려 놓은 것이었다. 보프랑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표면(surface)이 아니라 공간 자체였다. 이 '공간'에의 기호는 타원형·5각형 및 방의 각진 부분을 등골게 처리함으로써 또는 공간의 연속성을 주는 아케이드를 돕으로써 나타난다. 이의 비약은 네 입면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임을 입증하는 일체감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1730년대까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타원형 평면 위에 아치를 이용한 특이한 공간 형태의 응집실, 아울러 천장의 상승 효과를 배려한 벽과 천장 사이의 곡선 처리, 여기에 승고한 분위기를 주고자 강조한 수직선, 그 위에 엄격한 기하학 형태를 지니면서도 평온한 벽의 구획, 그리고 반복과 대비 등의 예는 이미 수비즈 저택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이다.

한편 보프랑은 수비즈 저택 완공후, 1745년 그의 저서 'Livre d'Architecture'를 출간하면서 수비즈 저택을 모델로 여러 아름다운 도면의 제시와 함께 당시 실내 장식의 지침을 간단히 적어놓고 있다. 그중 장식은 건축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각 방의 기능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며 방의 배치는 그 기능과 건축주의 사회적 위치에 따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수비즈 저택도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진 남·녀 거처가 그 사용자에 따라 매우 다른 면모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용도의 방 즉 침실과 응접실은 1·2층 모두 같은 공간 형태와 의도를 가지면서 내복 장식만으로 그 성격을 구분짓고 있어 다시 한번 반복과 대비라는 그의 건축이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층은 남자의 거처인 만큼 보다 남성적인 장식 테마를 비롯, 화려한 금빛 조각 장식을 거울과 회화 장식의 틀로 제한시켰음이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더욱이 각 패넬벽 위의 조각 문양의 경우, 2층은 엄격한 좌우 대칭 속에서 조개와 종려나무, 아라베스크가 단정히 그 모습을 금빛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1층은 좀 더 가벼워지고 섬세한 꽃 문양들이 비대칭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어 같은 저택 내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비대칭의 로코코 장식문양은 결코 지나치지 않은 절제감으로 그 경쾌함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이웃나라 즉 독일, 스페인에서의 복잡하리 만큼 발전된 로코코 양식과는 사뭇 대조적이며 프랑스로 하여금 절제된 비대칭의 양식을 지니게 한 힘이 엿보인다고 하겠다. 그러나 건축가의 건축 활동 배경에 따른 과거의 모습 즉 레전스 양식의 문양이 내부 곳곳에 나온다거나, 아직 각 방의 순수한 기능 역할이 떨어져 침실에 알코브가 도입되는 등 과도기적 양상이 나타나지만, 로코코 양식의 정립 단계인 1730년대 후반기에 이같이 훌륭한 공간 형태 및 화려한 내부 장식의 우수성을 표현하고 있음은 팔목할 만 하며 이러한 점이 나아가 로코코 양식의 모델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즉 실내에 빛을 증가시키면서 가벼움, 아름다움을 가져오게 한 백색 및 밝은 색의 패넬벽, 그 위의 금빛 혹은 백색 조각 장식, 벽난로와 그 상부의 거울, 회화 장식 등이 유행되면서 결국 이들이 로코코 양식의 실내 특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영향은 베르사이유궁의 패넬벽 구성에까지 나타나고 있어 과거 유행에 있어 수용적이던 파리의 개인 저택이 새로운 스타일에 대해 능동적인 입장이 되었다는데 이 저택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Ballot, M.J., 'Le Décor Intérieur Au XVIIIe Siècle A Paris et Dans La Région Parisienne', Paris, 1930.  
 'Belles Demeures de Paris 16<sup>e</sup> ~ 19<sup>e</sup> Siècle', Paris, 1977.  
 Germain Boffrand, '1667 ~ 1754 L'Aventure D'un Architecte Independant', Paris, 1986.  
 Boffrand, G., 'Livre D'Architecture', Paris, 1745.  
 'Caractéristique des Styles', Paris, 1988.  
 Feray, J., 'Architecture Intérieure et Décoration en France des origines à 1875, Caisse Nationale des Monuments Historiques et des sites', Paris, 1988.  
 Hautecoeur, L., 'Histoire de L'architecture Classique En France', Tome III, Paris, 1950.  
 Kimball, F., 'Le Style Louis XV, Origine et évolution du Rococo', Paris, 1949.  
 'La France Artistique et Monumentale Palais Soubise', Société de L'art Français, Paris.  
 Langlos, Ch. V., 'Les Hôtel de clisson, de Guise de Rohan-Soubise au Marais', Paris, 1992.  
 Le Marais, 'Ses hôtels ses Eglises', des deux-Mondes, Paris, 1964.  
 Pegler, M.M., 'The Dictionary of interior Design', London, 1967.  
 Verlet, P., 'La Maison du XVIIIe Siècle en France', Société Mobilier, Paris, 1966.  
 Babelon, J. P., 'Cahiers de la Rotond, Le Grand Apartment du prince de Soubise au rez-de-chaussée de L'Hotel de Soubis', Paris, No. 5, 1982.  
 Les Réactions contre la Rocaille, Journal de L'Ameublement Meubles et Décorés', Paris, 1964.  
 Schiumberger, E., 'L'ilot 6, Connaissance des Arts', Paris, 1964.

〈접수일 : 1993. 12. 5〉

19) 패넬벽 상부에서 에포앵송을 받치고 있는 두 '사랑의 신'과 코니스 상부의 백색 회반죽의 조각군.

20) Langlois, CH. V., 1922, p. 174.